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0년 하반기 자체청렴도 측정계획' 송부

대검찰청 검찰부에서는 청렴 시책의 방향 제시와 각급 청 모니터링을 통한 검찰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자체청렴도 측정계획'을 전국 청에 송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정읍지청, '기관장 청렴 쪽지' 시행



정읍지청(지청장 조주연)은 '20. 8. 19. 기관장 청렴의지 표명과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이야기를 전 직원에게 송부' 하였습니다.

8월에는 '레고(Lego)의 위기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검찰의 본질과 기본인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송부했다고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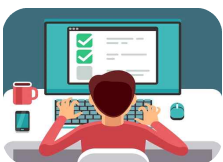
[3] 천안지청, '클린카드 정기 점검' 실시

천안지청(지청장 홍승욱)은 '20. 8. 5. 정부구매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 카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권익위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 31. ~ 11. 30.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요청받으신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반부패 청렴 O-X 퀴즈

'반부패 청렴 의식'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



1.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이 없다. ()
2.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수행한 외부강의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1. O,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금품등의 수수금지) / 2. X,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 3. O,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임



2020년 상반기 자체 청렴도 결과 발표

대검찰청 검찰부에서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자체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인천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북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제주지검
4그룹	10개 차치지청	안산지청
5그룹	15개 부치지청	군산지청
6그룹	16개 단독지청	밀양지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일선 청 직원 및 청렴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

2020. 9. 28.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청탁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콜게이트 대학 마이클 존스톤(Michael Johnston) 교수의 부패유형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존스톤 교수는 한국의 부패유형을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같은 직업군이나 출신지역, 학교, 경제적 수준 등을 공유한 엘리트 집단끼리 폐쇄적으로 인맥을 형성하고 청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며 사회 속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많은 비리사건 속 등장인물들은 '상호 청탁에 금품수수가 없어서' 또는 '금품등 수수와 청탁의 시간차 등으로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어서' 처벌 할 수 없는 사실을 악용했거나, 거절해야 하는 청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변의 압박과 카르텔에서 배제되는 두려움'으로 청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패의 근원은 '청탁'입니다.

누구에게나 친한 친구나 선배, 후배 등 동료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부탁이 공적인 일처리에 개입하게 되면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내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렴한 자세로 선배와 후배, 동료 간의 모든 부탁을 거절하면 유별나거나 매물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오히려 인심을 잃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어도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여러 동기 중 하나는 위와 같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청탁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금지는 물론 금지된 청탁의 구체적 유형과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청탁금지법!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며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가야겠습니다.

✓ 참고문헌
김영란·이법준 저,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2017년, 풀빛)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대검 검찰부 클린콜 센터에서는 매 _____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 지원)를 대상으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월 ② 분기 ③ 년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8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0. 9. 21.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8월 정답은

① 말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



축!
당첨

윤○○(부산), 김○○(장흥), 박○○(대검), 연○○(수원고), 윤○○(제주), 김○○(대구고), 권○○(평택), 성○○(서울남부), 서○○(수원), 김○○(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후 1시 이후에 열람등사실을 방문했는데 음식냄새가 진동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직원 한 분이 자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졌을 수 있지만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늦어진 점심시간과 더불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식사 등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 거주 중 지청에서 불기소증명을 받아야해서 문의했는데 해남지청 담당 직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근거리 신청제도에 대해 안내해주어 가까운 검찰청에서 편하게 업무처리를 마쳤습니다.

해남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